

OSHRI Newsletter

No. 22

December 20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식지

제55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안전보건
단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구미시 금오산호텔에서 개최된 제55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015년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우극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혁면 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건강한 직장을 위한 병가와 상병 급여'의 주제로 김은아 직업건강연구실장의 기조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일반건강진단의 검진 참여 순응도에 따른 수검자의 건강상태 조사'와 '백혈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여부에 대한 판단경향'에 관한 주제로 2편의 연구결과를 구두발표 하였고, '우리나라 고용 보험가입 근로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표준화 사망비와 표준화 발생비' 등 총 9편의 연구내용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보호구 유럽인증 취득지원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11월 18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의 유럽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가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유럽연합의 안전인증인 CE마크를 받아야 하며, 국내업체에는 이러한 CE마크 취득이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하는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6월의 일본 성능검정 취득지원 세미나에 이어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의 유럽지역 수출을 돕기 위해 유럽의 보호구 인증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인증취득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국제호흡기보호협회 의장(조프 베스팅거, Geoff Bestinger)이 '호흡용 보호구 제품의 유럽연합의 시험기준'에 대하여 발표하고, 티유브이 라인랜드 한국지사(TÜV Rheinland Korea)의 CE마크 전문가가 '유럽의 보호구 분야 CE마크 인증제도'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외에도 CE마크 전문가의 '안전대의 국제규격과 인증동향' 설명이 있었다.

특히, 발표자와 참석한 관계자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 국내업체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유럽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내 안전인증인 KC마크와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제4회 OPCW 서울워크숍 참가 - 우리나라 화학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혁면 연구원장은 10월 20일(화)부터 10월 22일(목)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4회 OPCW 서울워크숍에 참가하였다.

OPCW 서울워크숍은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안전관리분야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12년부터 올해 4회째 아시아지역 당사국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시아국가의 정부·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학기술 및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약과 관련한 화학의 평화적 이용을 고취시키고, 당사국간의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권혁면 연구원장은 10월 21일(수) 세션3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화학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2015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발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공학회 2015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권혁면 원장은 화학공정 안전과 기술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며, 화학공정안전 세션의 기조 연설자(Keynote Lecture)로 선정되어 '화학사고예방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연구원에서는 2건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교류에 기여하였다.



공학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견학 프로그램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10월 27일(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과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미래 주축 세대들에게 산업안전의 가치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경영공학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산업경영공학부 소속 교수와 재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연구실 박용규 연구위원의 「안전과 경영」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안전연구실과 안전인증센터 시험실 견학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성과를 설명하고, 산업안전 및 진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5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10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국내외 민·관·학계 350여명의 안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207편의 학술논문, 연구개발성과 및 현장안전 기술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특별 세션에는 연구실안전과 안전문화에 관한 주제로 10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5편의 연구결과를 구두발표하였고, 10편의 연구내용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하는 등 그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근호 한국안전학회 회장과 학회 참석 교수 5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16년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청취,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외 교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등록업체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11월 19일(목) 자금지원 최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였다.

해당 자금지원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에 우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인증 취득제품 연구개발 4건, 사업장에 필요한 시험장비 6대를 지원하는 등 총 10개 사업장에 2억5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자금 지원금액을 작년에 비해 5천만원 증액하는 성과도 이루었으며 계속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2016년에도 양질의 방호장치·보호구 개발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금지원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산재예방과 해당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제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 공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년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제4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조사이며 통계청 승인을 받아(제38002호)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15세 이상 취업자 중 50,000가구(가구당 1명)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작업시간, 근무패턴 등 근로환경에 관한 128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직장에서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은 2006년 최초 조사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위험으로는 높은 근로 강도, 감정 소비, 자율권 부족, 윤리적 충돌,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71.7%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하반기 산업보건분석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1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2015년 하반기 산업보건분석 세미나”를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회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환경평가 및 분석’, ‘Column 이론 및 응용’ 등의 주제 발표와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특강이 있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제도 개선 방안 및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5년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11월 27일(금)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원장(위원장), 고용노동부 담당자, 화학물질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노사단체 관계자, 산업의학, 산업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법 상 규제 포함 여부 등의 안전을 검토하였다. 특히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의 지정 범위 및 선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은 향후 국가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기술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대전보건대학교 강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담당자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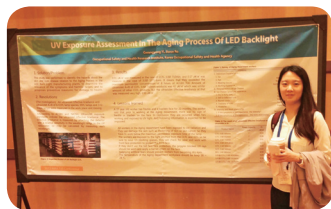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3일 동안 폐활량(정도관리 부적합 평가사례, 폐활량검사의 판정 및 해석 등), 청력(청력관리 자료평가에서 사례별 평가·판정 등), 방사선촬영(흉부방사선사진 촬영과 화질관리 실무)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정도관리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정보와 지식의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13년부터 올해 3년째 개최되었으며 매년 설문조사 실시결과 세미나 만족도 및 필요성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정기 세미나로 정착시켜 신규교육 위주의 정도관리 교육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해소할 보수교육의 기회로 발전 시킬 예정이다.



국제활동

2015년도 미국산업위생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노지원 연구원은 10월 25일(일)부터 28일(수)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미국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그간 연

구원에서 수행한 작업환경 유해도평가 자료를 이용, 「LED Backlight 검사 공정의 자외선 노출평가」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PDC), 워크숍 등을 통해 미국의 산업위생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나노물질 및 센서테크놀러지의 작업환경분야 접목에 관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었다.

독일 A+A 2015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 및 전시회) 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혁면 연구원장은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 7일간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 A+A 2015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독일 A+A 2015는 2년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로 전시회와 병행하여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분야 최대의 국제전시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혁면 연구원장은 한국의 안전인증 제도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한국 시장 환경’의 주제로 발표와 함께 한국의 안전인증 제도를 소개하였다.

소식·동정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재능나눔활동의 하나로 11월 17일(화) 울산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울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 식생활과 건강, 비만예방”을 주제로 어린이 건강예방 교실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과 직업건강연구실은 공동으로 11월 13일(금) 본부 1층 IBK기업은행 앞에서 KOSHA 나눔바자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나눔바자회에서는 책, 옷, 방향제 등 직원들의 애장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